



『핀처 마틴』에 나타난 두 가지 환상: 상징적 허구와 환상적 유령*

김 일 영

I

1956년 출간된 윌리엄 골딩(William Golding)의 『핀처 마틴』(*Pincher Martin*)은 바다의 자그마한 바위섬에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마틴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마틴의 생존 문제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 골딩은 이 작품에 관해 논의한 어느 인터뷰에서 “단지 핀처가 되는 것은 연옥이지만, 영원히 핀처가 되는 것은 지옥입니다”(Just to be Pincher is purgatory; to be Pincher for eternity is hell, Oldsey 94 재인용)라고 언급함으로써 마틴이 직면한 생존의 문제를 종교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골딩은 인터뷰에서 “(종교적) 구원을 받기 위해선 개성-자아는 파괴되어야 한다”(To achieve salvation, individuality-the persona-must be destroyed, Oldsey 83 재인용)고 주장하면서, 탐욕의 화신인 마틴은 임종시 파괴되는 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구원 받지 못하게 될 것

* 이 논문은 성균관대학교의 2020학년도 63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라는 암묵적 사실을 말하였다.

작품 해석에 대한 일종의 방향 제시가 된 골딩의 이러한 인터뷰로 말미암아 대다수의 골딩 비평가들은 이 소설에 나타난 기독교적 은유와 알레고리에 주목하면서 이 작품을 구원의 문제와 관련된 종교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제임스 베이커(James Baker)는 이 작품을 “신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세계, 자신만의 가상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오만한 이성주의자”(arrogant rationalist who repudiated any belief in a god and claimed for himself the god-like power to create his own world, his own virtual reality)에 관한 이야기로 간주하였고(314), 레온 수레트(Leon Surette)는 이 작품을 “신령의 힘을 표현하기 위한 그[골딩]의 가장 직접적인 . . . 시도”(his most direct . . . attempt to express the power of the numinous)로 보았다(209).

종교적 관점의 연장선으로서 이 소설을 도덕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비평도 주류를 이룬다. 사무엘 하인즈(Samuel Hynes)는 이 작품을 악의 문제와 그 결과를 다루는 일종의 “도덕적 프로그램”(moral program)으로 보았고(129), 버프킨(E. C. Bufkin)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7가지 대죄(seven deadly sins) 중 하나인 탐욕의 문제를 다룬 “도덕극의 각색”(adaptation of the morality play)으로 이 작품을 평가하였다(5).

이 소설에 대한 골딩의 인터뷰와 작품에 나타난 기독교적인 요소를 근거로 이 작품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비평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실존주의 철학의 관점에서 논하는 비평 또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이 작품에 종교적 알레고리가 많지만 이를 강조하는 것은 소설에 대한 이해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며, 리 화이트헤드(Lee Whitehead)는 사르트르(Sartre)적 실존주의의 관점에서, “의도하는 의식과 의도된 세계”(the intending consciousness and the intended world, 19), 즉 마틴의 의식과 마틴이 만들어낸 세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고, 로날드 그라노프스키(Ronald Granofsky)는 “마틴의 투쟁이 정의될 수 있는 요인으로서의 물의 지배에 대한 묘사”(a description of the dominance of water as the element by which martin's larger struggle is to be defined, Granofsky)를 통해(52), 마틴의 생존에 내재한 실존주의적 면모를 작가가 그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빌 자릴(Nabil Jalil) 또한 이 작품을 실존주의 관점, 보다 구체적으로 실존주

의 철학자 까뮈(Camus)의 부조리(absurdity)와 “부조리한 반역”(absurd rebellion, 188)의 개념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인생의 부조리가 생겨난다는 까뮈의 철학을 근간으로, 마틴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즉 부조리한 상황에 놓인 시지푸스(Sisyphus)에 비유하며,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마틴의 저항을 개인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창조하기 위한, “인생의 부조리에 대한 반역”(a rebellion against the absurdity of life)으로 보았다(190).

『핀처 마틴』은 이처럼 종교적 해석과 실존주의적 해석 모두 가능하지만, 이 작품의 부제인 “크리스토퍼 마틴의 두 가지 죽음”(The Two Deaths of Christopher Martin)이 시사하듯, 이 작품은 근본적으로 살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과 그의 죽음을 다룬 생존 서사다. 이 작품은 전적으로 전쟁 중 어뢰에 맞은 영국 전함에 있던 마틴이 바다 한 가운데 있는 바위섬에 매달려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소설은 다니엘 디포(Daniel Defoe)의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처럼 고립된 섬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인간의 모습을 다룬 전통적인 생존 서사와는 전혀 다르다. 마틴의 시신을 발견한 캠벨(Campbell)과 마틴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온 해군 장교 데이비드슨(Davidson)이 등장하는 마지막 엔딩을 통해 마틴은 바다로 떨어진 뒤, 해염을 치기 위해 장화(sea boots)도 벗지 못한 상태에서 익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즉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는 골딩 특유의 이런 ‘지믹 엔딩’(gimmick ending) 혹은 ‘트릭 엔딩’(trick ending)을 통해 바다에서의 마틴의 생존을 위한 사투는 실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마틴이 만들어낸 혹은 상상한 것으로 밝혀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골딩이 이런 ‘지믹 엔딩’을 통해 마틴의 생존기가 실제 벌어진 일이 아니었음을 밝힌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수레트는 이 ‘지믹 엔딩’을 통해 골딩은 이 작품을 사후 삶에 관한 이야기, 즉 “사후 서사”(a postmortem narrative)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206). 즉 이 소설은 육신이 죽은 뒤, 영혼이 겪게 되는 삶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하지만 작품이 시작하자마자 사망한 마틴이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이 그가 실제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단순히 이 소설을 사후 서사로 볼 수 없게 한다. 이 모든 것이 마틴이 만들어낸 환상이며, 이러한 사실은 작품 말미에 등장하는 “검은 번개”(black lightening, 71)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다.

검은 번개는 마틴이 묘사한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틴이 만든 환상이란 사실을 마틴의 세계를 하나하나씩 해체시킴으로써 보여준 뒤, 종국에 가서는 이러한 환상을 만든 마틴 자신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환상임을 보여줌으로써, 마틴으로 하여금 두 번째 죽음, 즉 형이상학적 죽음을 맞이하게 한다. 하지만 아이로니컬한 것은 마틴의 환상 세계를 해체하는 검은 번개 자체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이라는 점이다. 즉 마틴이 실제처럼 묘사한 세계가 마틴의 환상임을 드러내는 검은 번개 자체도 환상인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지믹 엔딩”이 나타나는 마지막 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환상으로 구성된 이 소설은 마틴의 형이상학적 생존과 죽음을 환상의 형태로 구현한 작품이다. 따라서 마틴의 형이상학적 생존 투쟁과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선 마틴이 익사한 후 만든 환상의 본질, 그리고 그 환상을 해체함으로써 마틴이 형이상학적 죽음을 맞이하도록 한 검은 번개란 또 다른 환상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의 두 가지 환상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크 라캉(Jacques Lacan)의 상징계(symbolic order)와 실재(the real)의 개념에 근간을 둔 지젝의 두 가지 환상이론은 마틴의 환상적 생존 서사에 나타나는 두 가지 환상의 본질과 이 두 가지 환상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젝은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The Sublime Object of Ideology*)에서 이데올로기가 만든 환상을 “이데올로기적 환상”(ideological fantasy, 27) 혹은 “이데올로기적 환영”(ideological illusion, 27)으로 칭하며, 이 이데올로기적 환상은 근본적으로 (이데올로기적)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라캉의 상징계에 의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상징계, 즉 사회 속에서의 삶은 환상이라고 말한다. 즉 우리가 ‘일상의 리얼리티’(everyday reality)라고도 칭하는 사회 속에서의 삶은 엄격한 의미에서 ‘리얼리티’가 아니라, 하나의 환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젝은 『실재 알아보기』(*Interrogating the Real*)에서 이 일상의 리얼리티를 상징계에 의해 형성된 것이란 의미에서, “상징적 허구”(symbolic fiction, 228) 혹은 첫 번째 환상이란 의미에서 “환상1”(fantasy1, 233)로 명명한다.

지젝은 여기서 더 나아가 ‘상징적 허구,’ 즉 환상1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두 번째

환상 개념을 도입한다. “리얼리티의 왜곡”(distortions of reality)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Interrogating the Real* 232), 지젝이 “환상적 유령”(fantasmatic spectre, 228) 혹은 “유령 같은 환영”(spectral apparition, 230)이라고도 지칭하는 이 두 번째 환상, 즉 “환상2”(fantasy2, 233)는 상징계의 질서에 편입되지 않고, 상징계 내에 ‘부재’(absence) 혹은 ‘구멍’(hole)으로 존재하며, 더 나아가 이데올로기적 환상/상징계의 허구성을 드러냄으로써, 상징계를 위협하는 라캉적 실재의 체현(體現)이다. 즉, 지젝은 상징계 내에서의 삶을 환상1로, 상징계 내에 부재로서 존재하며, 상징계의 균열과 모순을 보여주는 실재를 체현한 “유령 같은 환영”을 “환상2”로 명명하였던 것이다.

마틴의 형이상학적 생존 서사에 나타나는 환상은 바로 지젝의 이 두 가지 환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마틴이 익사 후 만드는 환상은 언어로 구성된 상징계적 환상, 즉 지젝의 ‘상징적 허구’로서 환상1이며, 환상1의 허구성을 드러내며 이를 무너뜨리는 검은 번개는 실재의 체현으로서의 환상, 즉 환상2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마틴이 상징적 허구인 환상1을 왜 만들었는지, 혹은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환상1이 환상2에 의해 왜 붕괴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지젝이 말하는 두 환상의 속성과 이 두 환상 간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 작품이 실제 벌어진 사건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마틴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마틴의 환상이라는 사실은 작품 초반에 이미 제시된다. 전쟁 중 독일 함대가 쏜 어뢰에 맞아, 타고 있던 배에서 튕겨져 나가 바다로 떨어진 마틴은 장화를 벗고 필사적으로 수영을 하려 하지만, 절망적인 상태에서 외친 “어머니”(Moth . . .)라는 말을 채 끝맺지도 물에 잠긴다.¹⁾ 이 순간 골딩은 “그의 버둥거리는 육신으로부터 분리된 채, 이 모든 소동 뒤”(behind the whole commotion, detached from his jerking

1) Golding, William. *Pincher Martin* (London: Faber and Faber, 2015), p. 2. 앞으로 이 책에 대한 인용은 괄호 안에 쪽 수만 명기하겠음.

body, 2)에 어떤 존재가 있다고 진술함으로써 마틴이 인식하였음을 암시한다. 골딩이 말하는 존재는 인식한 마틴의 육신에서 분리되어 자신의 시신을 바라보고 있는 마틴의 영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골딩은 육체에서 분리된 마틴의 영혼을 “으르렁거림”이란 의미의 영어 단어인 “스날”(snarl)로 지칭(2)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얼굴은 없었고 스날만이 있었다”(There was no face but there was a snarl, 2)란 골딩의 말로 암시된다. 즉 마틴의 인식한 시신을 바라보는 것은 육체에서 분리된, 따라서 육체가 없는 마틴의 “스날”이었던 것이다.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하는 마틴의 강한 동물적인 욕망 혹은 의지를 대변하는 스날은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 어둠의 세계에 처해있음을 알게 되자, 도와달라고 소리친다.

난파선도 없었고, 가라앉는 선체도 없었으며 자신 이외에 버둥거리는 생존자도 없었다. 오로지 눈앞 가까이에 있는 어둠만이 있었다. . . . 그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그 누구든지 간에 그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하였다.

There was no wreckage, no sinking hull, no struggling survivors but himself, there was only darkness lying close against the balls of the eyes. . . . He began to cry out for the others, for anyone. (7)

자릴은 마틴이 직면하고 있는 “어둠”(darkness)은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inability of the human individual to understand the world)을 상징하며 (189), 이 어둠 속에서 마틴이 이처럼 외치는 이유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공포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마틴이 느끼는 공포는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절대적 적막과 절대적 어둠이 나타내는, 절대적 무(nothingness)/비존재(non-existence)의 세계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마틴을 더욱더 패닉 상태에 빠지게 하는 것은 이 절대적 무/비존재의 세계가 실제(의) 세계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게 실제야?”(But is this real? 40). 즉 인식한 순간 마틴이 느끼는 공포는 절대적 무/비존재이자 상징계 내에 부재의 형태로 존재하는 라캉적 실재에 대한 것이다. 라캉에 따르면 ‘존재’(existence)는 상징계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이며, 의미(meaning) 또한 언어화될 수 있는 상징계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상징계 밖의 영역인 실재는 ‘비의미,’ ‘비존재’의 세계로, 마틴에게는 죽음의 세계와도 같기 때문이다.

비존재의 세계인 죽음을 통해 실재를 직면하게 된 마틴은 자신의 죽음/비존재를 받아들이며 실재를 인정하여야 하지만, “스날”로 대변되는 마틴의 삶/“존재”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인해 실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마틴의 스날은 절대적 침묵과 어둠으로 대변되는 비존재/죽음의 세계인 실재에 대항하여, 자신의 “존재”를 주장하기 위해 상징계적 환상을 만들기 시작한다. 마틴에게 환상은 “절대적 기표”(absolute signification)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선험적 공간”(a priori space)이자(Žižek, *Sublime* 138), 그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상징계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즉 마틴(스날)은 자신의 정신적, 형이상학적 생존/존재를 위해, ‘상징적 허구,’ 즉 환상1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형이상학적 생존 서사에서 자신이 “존재”한다는 환상을 갖기 위해 마틴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자신의 신체다. 따라서 신체와 분리된 마틴(의 스날)은 스스로에게 신체 부위를 하나씩 부여하기 시작한다. 우선 스날은 마틴의 얼굴을 만든 뒤, 연이어 입, 입술, 이, 뺨, 눈을 만든다. 그리고 일단 얼굴이 완성되자 스날은 손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저 멀리 어둠 속에 있는”(in the darkness, far away) 손을 자신의 앞으로 가져와 “그의 방수복의 단단한 부위를 더듬기 시작했다”(began to fumble at the hard stuff of his oilskin, 5).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마틴의 스날은 자신이 손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단지 보이지 않던 손을 자신의 눈앞으로 가져왔다고 말한다는 사실이다. 마틴은 자신이 환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스날이 일단 마틴의 신체를 창조하자, 마틴의 신체에 위치한 “중심”(center)은 이제 마틴의 “의식”(consciousness)이 위치한 사령부가 되어, 스날 대신 환상 창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스날이 일단 마틴의 신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마틴의 중심/의식이 이제 만들어야 하는 것은 마틴의 생존을 위한 사투가 벌어질 장소와 그 주변 환경이다. 따라서 마틴의 중심/의식은 맨 먼저 마틴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위섬을 만들어낸다. 그러곤 자신이 만든 환상의 바위섬으로 헤엄쳐 오른 뒤, 목숨을 부지(?)한 것에 대해 일단 안도한 뒤, 바위섬 곳곳을 살피기 시작한다.

바위섬을 살펴본 뒤 마틴이 갖는 느낌은 이 바위섬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너무나도 낯이 익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 바위가 왜 이처럼 친숙한 거지? 전에 여기 와본 적도 없는데—’
 ... 매년 거의 만나진 않지만, 무시할 수 없는 친척처럼 친숙하고, 어린 시절
 의친구와 유모, 그리고 그 뒤에 영원을 갖고 있는 어떤 지인처럼 친숙하였다.

‘How the hell is it that this rock is so familiar? I’ve never been here
 before—’ ... familiar as a relative, seldom seen, but to be reckoned with,
 year after year, familiar as a childhood friend, a nurse, some acquaintance
 with a touch of eternity behind him. (132)

하지만 처음 본 바위가 오래된 지인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에 마틴은 안도감을 느끼는 대신, 오히려 “그는 이처럼 미치게 할 정도로, 그리고 뭔가 알 수 없지만, 친숙하게 보이는 무너진 바위들을 보고 얼굴을 찡그렸다”(He frowned at the tumbled rocks that were so maddeningly and evasively familiar, 134). 그가 바위를 보고 얼굴을 찡그렸던 이유는 “바위들의 윤곽”(lines of rocks, 80)을 엄숙히 바라볼 때 이 바위들이 사실 자신의 이(teeth)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즉 마틴이 바위섬을 보고 얼굴을 찡그린 것은 이 바위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서 사라진 자신의 이를 모델로 만든 환상, 즉 “그의 잃어버린 이의 투사물”(projection of his own lost tooth, Whitehead 21)일 수 있다는 의구심과 이로 인한 공포감 때문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바위섬에 있는 세 개의 바위를 “이”라고 부르겠다고 한 뒤, 마틴은 “그[마틴]를 휩쓰는 깊은 공포의 전율”(deep shudders that were sweeping through him)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94),

바위섬이 “사라진 이에 대한 기억으로부터”(out of the memory of a missing tooth) 만들어낸 환상일 수 있다는 강한 의구심은 들지만(Whitehead 21), 마틴은 생존의 근간이 되는 바위섬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마틴은 바위섬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기 위해, 바위 섬 주변의 환경을 만들어내며, 존재하지도 않는 이 바위섬에서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그리고 무엇을 보았는지를, 마치 실제 벌어진 일처럼 묘사하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이 거센 파도에 휩쓸려 내려가자

않기 위해 바위들 사이에 들어가기도 하였으며,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위섬에 고인 빗물을 마시고, 허기를 면하기 위해 해초와 홍합, 심지어 말미잘까지 먹었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바위섬 부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바위섬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돌을 쥘아 인간의 형상을 만드는 과정을 상세히 묘사하는 등, 바위섬에서의 자신의 생활을 상세히 기술한다.

하지만 마틴이 바위섬에서 행한 행위나 바위섬에서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그의 상상력이 만들어 낸, 즉 그의 생각이 의식적으로 만들어낸 환상이다. 즉 마틴은 “눈 뒤에 있는 조각상처럼”(like a piece of sculpture behind the eyes, 171), 자신의 의식/생각이 만들어 낸 환상을 보는 것이다. 따라서 콜딩은 “그[마틴]는 영원한 과도기 동안 자신의 생각을 바라보았다”(he watched the thought for a timeless interim, 171)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마틴의 의식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환상은 근본적으로 언어로 구성된 세계다. 이러한 사실은 마틴이 바위섬의 각 부분에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

나는 생존하는 데 바쁘다. 나는 이름으로 이 바위를 묶고, 길들이고 있다. 누군가는 이것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름이 주어진 것은 봉인되며, 사슬에 묶인다.

I am busy surviving. I am netting down this rock with names and taming it.
Some people would be incapable of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that.
What is given a name is given a seal, a chain. (90)

마틴은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가 그 대상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름에 의한 통제를 통해 그 대상의 의미가 정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의 주체와 정체성은 언어로 구성된 상징계, 즉 “대타자에 종속됨으로써”(by virtue of his subjection to the field of the Other)만이 주어진다는 라캉의 말과 그 궤를 같이한다(*Seminar* 2 188). 따라서 마틴이 만드는 환상은 상징계의 환상, 즉 ‘상징적 허구’이며, 그가 만든 바위섬은 언어로 구성된 상징계, 즉 인간 사회의 상징이 되고, 바위섬에서의 그의 행위/삶은 상징계 내에서의 삶인 “일상의 리얼리티”가 되는 것이다. 즉 언어로 구성된 마틴의 환상은 “사회적 리얼리티 자체를 구성하는 환상”(fantasy structuring our

social reality itself)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리얼리티’로서의 환상인 것이다(Žižek, *Sublime* 30). 언어는 사회적 리얼리티이자 “일상의 리얼리티를 유지하는 주요 도구”(main instrument for maintaining this everyday reality)이기 때문이다(Waugh 52).

“(일상의) 리얼리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상징적 허구, 즉 환상은 실재를 가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지젝의 표현을 빌리자면 “리얼리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욕망의 실재를 가리도록 해주는 환상의 구조물인 것이다”(Reality is a fantasy-construction which enables us to mask the Real of our desire, *Sublime* 45). 마틴이 가리고자 하는 실재는 죽음으로 표상되는 비존재/무(無)의 세계다. 무로서의 실재는 “상징계 한 가운데에 구멍, 틈, 빈 공간”(a hole, a gap, an opening in the middle of the symbolic order, Žižek, *Sublime* 191)으로 존재하며, 마틴의 죽음/비존재를 드러내기 때문에 마틴은 그 “구멍을 메꾸는 상상의 시나리오로서, 구조물로서”(as a construction, as an imaginary scenario filling out the void, Žižek, *Sublime* 128), 실재를 가리는 스크린으로서 환상을 만들었던 것이다.

마틴이 상징적 허구의 근간으로 삼은 구조물인 바위섬도 바로 이런 구멍과 부재를 감추기 위해 만든 환상이다.²⁾ 이러한 사실은 이 바위섬이 마틴의 썩은 이, 즉 “이 사이의 틈”(gap between the teeth, 185)을 모델로 만들어진 것이란 사실을 통해 제시된다. 썩은/사라진 이는 구멍, 틈 혹은 부재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 구멍을 감추기 위해, 혹은 메꾸기 위해, 썩은 이를 모델로 만들어진 바위섬은, 상징계 내에 구멍 혹은 부재로 존재하는 “비존재의 틈”(The the gap of not-being, 180), 즉 실재를 감추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2) 상징계 내에 구멍으로 존재하는 실재를 감추기 위해 바위섬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이 바위섬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통해서 제시된다. 마틴은 현재 자신이 머무르고 있다고 믿는 바위섬인 락올(Rockall)은 실제로 북 대서양에 위치한 영국령 바위이긴 하지만, 마틴의 동료 선원들은 “락올”을 발음상 운(韻)이 맞는 “퍽올”(fuckall)로도 지칭함으로써 이 바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암시한다. 프랭크 커모드(Frank Kermode)의 지적처럼 “퍽올”은 “‘무’를 나타내는 외설적 단어”(an obscene word for ‘nothing’)이며 (61), “선원들과 다른 사람들이 무(無)를 의미하는데 사용되는 강한 용어”(an emphatic term used by seamen and others to mean ‘nothing all’)이기 때문이다(Whitehead 25). 따라서 마틴이 현재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바위섬을 락올이라고 믿는다는 사실은 이 바위섬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틴 자신도 의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죽음이라는 실체를 차단하는 세계”(a world that will shut out the reality of death, Johnston 106), 실재를 가리는 스크린으로서의 바위섬이 실재에 대한 마틴의 두려움을 보여주듯, 잠에 대한 마틴의 두려움 역시 실재에 대한 그의 두려움을 나타낸다. 어린 시절부터 마틴은 잠을 두려워하였는데, 꿈을 꾸면 항상 어두운 지하실로 내려가, 부서진 판이 있는 “유령과 강도 그리고 공포의 세계”(world of ghosts and robbers and horrors, 147)를 접하기 때문이었다. 즉 “조사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곳”(where we touch what is better left unexamined)인 잠은 마틴이 외면하고 싶은(95), 판과 유령으로 대변되는 죽음/비존재, 즉 라캉적 실재를 만나는 곳이기며, “나[마틴]는 (자는 것이) 두렵다”(I[Martin] am afraid to (sleep))고 말하는 것이다(96). 그에게 있어 잠을 자는 것은 “죽는 것에 동의”(consenting to die)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95).

마틴이 자신의 동료 나다니엘(Nathaniel)을 증오하고 더 나아가 두려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신의 선물”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나다니엘은 그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세계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틴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시도한다.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거네. 천국은 순수한 비존재일 거야. 형태가 없는, 공(空)의 세계야, 알겠나?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일종의 검은 번개야.

Take us as we are now and heaven would be sheer negation. Without form and void. You see? A sort of black lightning destroying everything that we call life. (71)

나다니엘이 말하는 천국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전통적 의미의 천국과는 다르다. 그 곳은 어떠한 형태도 없는 순수 부재, 절대적 비존재/무의 세계로, 어떠한 환상적 구조물도 없는 실재와 같은 세계이기 때문이다. 즉 나다니엘은 마틴에게 천국이라는 이름의 실재를 받아들이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삶은 실재를 외면하고 만든 조작된 환상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다니엘은 종국에는 검은 번개가 나타나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환상/상징적 허구를 파괴하고, 무/비존재의 세계인 천국/실재의 세계로 인도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다니엘의 천국은 마틴에게는 죽음의 세계다. “천국을 얻기 위해”(to achieve heave, 72) 비존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나다니엘의 말은 마틴에게는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때문이다³⁾. 따라서 마틴은 적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배의 후현 쪽 후미에 있는 난간에 엉덩이를 기대고 서 있는 나다니엘에게 위협하다고 어떤 경고도 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불편한 진실을 알려주고자 하는 나다니엘은 마틴에게 달갑지 않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마틴은 그가 죽기를 바랐던 것이다.

나다니엘의 약혼녀 마리(Mary) 또한 마틴에게는 불편한 진실을 표상하는 인물이다. “결코 말로 표현되기 위해 표면에 도달하지 않는 지혜”(wisdom that never reached the surface to be expressed in speech, 157)를 가진 마리는 마틴에게는 “미스터리”(mystery)한 존재다(105). 하지만 마리가 가진 지혜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는 “그것들[마리의 눈]이 어린 시절의 밤들을 가져왔다”(They brought back the nights of childhood, 158)는 마틴의 고백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마리는 어린 시절 마틴이 꿈에서 보았던 지하실, 즉 “유령과 강도 그리고 공포의 세계,” 즉 부서진 관이 있는 죽음/비존재의 세계를 보게 하였던 것이다.

마리가 표상하는 세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마틴이 마리를 강간하려고 시도하였을 때이다. 통제할 수 없는 마리를 “정복하고 무너뜨릴 필요”(the need to conquer and break, 158)를 느꼈던 마틴이 “그의 패턴을 마리아에게 강제하는”(impose his pattern upon Mary, 29) 방편으로서 마리를 강간하려할 때, 마틴은 (마리의) “두 응시하는 눈이 있는 흰 얼굴 위에 드리워진 여름 번개”(summer lightening over a white face with two staring eyes, 161-62)를 보게 된다. “삶”이란 환상을 파괴하는 나다니엘의 “검은 번개”를 연상시키는 마리의 (눈에 나타나는) “규제를 무시하는 통제할 수 없는 여름 번개”(uncontrollable summer lightning ignoring the regulations, 160)는 마리(의 눈)가 지하실로 상징되는 죽음의 세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마틴을 무/비존재로의 실재로 데려갈 수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에 마틴은 마리를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3) 나다니엘 자신도 이러한 사실을 의식하고 있어,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 비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을 “천국으로 가는 죽는 테크닉”(The technique of dying into heaven)이라고 부른다(72).

마틴은 이처럼 실재를 두려워하여, 이를 감추기 위해, 상징적 허구, 즉 환상을 만들어냈지만, 마리의 눈에서 실재의 세계로 이끄는 번개를 보았듯이, 바위섬에서도 마틴은 자신의 환상의 허구성을 드러냄으로써 실재를 보도록 유도하는 “리얼리티의 정확한 재현의 왜곡”(distortion of the accurate representation of reality)을 경험하게 된다(Žižek, *Interrogating the Real* 230). 마틴은 어느 순간 자신의 손이 부풀었다가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고는 경악하며, “이것은 실체가 아니야. 생명의 끈. 매달려야 해. 이것은 실체가 아니야”(He peered down at them (hands) first with one eye then the other. They swelled and diminished with a slow pulsing. ‘That’s not real. Thread of Life. Hang on. That’s not real’)라고 소리친다(151).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을 접한 마틴은 자신의 손이 자신이 만든 환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자신이 병에 걸려 헛것을 보고 있다는 의미로 “이건 내가 체온이 100도가 넘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틀림없어. 난 병원에 가야 해”(That must mean I’m running a temperature of well over a hundred. I ought to be in hospital)라고 말한다(151).

하지만 “리얼리티의 정확한 재현의 왜곡”으로서의 이러한 기이한 현상은 그의 손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다. 마틴은 자신이 그동안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던 바다에서 헤엄치는 붉은 바닷가재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던 중 갑작스럽게 “누가 바다에서 헤엄치는 바닷가재를 보았겠는가? 붉은 바닷가재를 말이다?”(whoever saw a lobster like that swimming in the sea? 178)라고 외치면 큰 충격에 빠진다. 바닷가재는 익었을 때만 붉은 색을 띄기 때문에 붉은 바닷가재는 헤엄을 칠 수 없다는 사실을 마틴은 뒤늦게야 불현듯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깨달음의 순간 마틴은 무엇인가 사라지고 “자신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으며”(he felt himself falling),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어둠의 틈”(a gap of darkness in which there was no one)을 직면하게 된다(178). 자신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 즉 자신이 보고 있는 것들이 환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마틴은 자신의 환상을 유지하던 무엇인가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곤, 자신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어둠의 틈,” 즉 비존재로서의 라캉적 실재와 맞닥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된 것이다.

마틴이 만든 환상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또 다른 “리얼리티의 정확한 재현의 왜곡”은 구아노(guano)와 관련해서도 나타난다. 마틴은 바위섬에 고인 “끈적거리는

물”(slimy wetness)로 얼굴을 씻은 뒤(185), 자신의 눈이 따가운 것은 물에 구아노가 녹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지만, 후에 구아노가 물에 녹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상기하고는 당혹감을 느낀다. 마틴은 물에 녹은 구아노도 자신이 만든 환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마틴이 만든 환상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하늘을 나는 도마뱀”(a flying lizard, 173)이다. 마틴은 바위섬에서의 여러 차례에 걸쳐 하늘을 나는 도마뱀을 목격하였다고 말하였지만, 도마뱀 역시 하늘을 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깨달았던 것이다.

하지만 마틴은 존재할 수 없는, 혹은 가능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을 접하면서도 자신이 만든 환상의 허구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 곧 비존재를 받아들이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최후의 방편으로 자신이 불가능한 현상을 목격한 이유를 자신이 미쳤기 때문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다에서 헤엄치는 붉은 바닷가재를 보았을 때, 인간은 미친 게 틀림없어. 그리고 구아노는 물에 녹지 않아. 미친 사람은 갈매기를 하늘을 나는 도마뱀으로 볼 수 있을 거야.”(A man must be mad when he sees a red lobster swimming in the sea. And guano is insoluble. A madman would see the gulls as flying lizards, 190). 마틴이 이처럼 자신이 미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자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환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 따라서 마틴은 진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정신병자, 불쌍한 톰”(Bedlamite, Poor Tom, 189),⁵⁾ “폭풍우가 치는 한 가운데서 바위 위에 있는 벌거벗은 광인”(a naked madman on a rock in the middle of a storm,

4) 마틴이 스스로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장면에 대해 알렉산더 홀링거(Alexander Hollinger)는 “정체성의 상실이 정신의 온전함의 상실과, 이성과 사고의 상실과 함께 한다”(loss of identity goes hand in hand with loss of sanity, of reason and thinking)고 말하고 있지만 (78), 마틴은 정체성을 상실해서 이성을 잃고 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존하고 있다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만든 환상의 모순을 드러내는 환상적 유령/유령 같은 환영을 본 자신이 미쳤다고 생각하기로 작정한 것이다.

5)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의 『리어왕』(*King Lear*)에 등장하는 에드가(Edgar)는 동생 에드먼드(Edmund)에 의해 부친 그로스터(Gloucester) 백작의 살해를 시도했다는 누명을 쓰게 되자,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정신병자인 “불쌍한 톰”의 연기를 한다. 즉 “불쌍한 톰”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광인인 척하는 인물의 대명사로 여기서는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206)이 되고자 한다.⁶⁾ 그에게 광기는 자신이 만든 환상을 유지하고, 진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일종의 방어막이자 피난처이기 때문이다. 마틴 스스로 자신이 광기를 가장하는 이유가 자신의 환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바위의 틈과 같은 피난처로서의 광기가 항상 있다. 더 이상 방어막이 없는 사람은 항상 광기 안으로 기어들어갈 수 있다. . . . 광기는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것이다.”(“There is always madness, a refuge like a crevice in the rock. A man who has no more defence can always creep into madness. . . . madness would account for everything, 199).

광기 속으로 도피하여 자신의 환상을 유지하려 하지만, 마틴의 광기는 하나의 연기이기 때문에, 그의 환상은 또 다시 위기를 맞게 된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위기는 “그[마틴]의 마음의 투사물”(a projection of my mind, 208)인 마틴의 입(mouth), 즉 마틴이 만든 입에 의해 도래된다. 마틴에게서 떨어져나간 그의 입은 “충분히 하지 않았나, 크리스토퍼?”(Have you had enough, Christopher? 208)라는 말로 포문을 열며, 마틴에게 살아있다는 환상에 매달리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나[마틴]의 생명의 끈”(the thread of my life, 209)에 대한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마틴은 이를 거부하고, “바위 위의 불쌍한 미친 선원”(poor mad sailor on a rock, 211)이 되어 바위 위를 기어 다니더니, 마침내는 네모난 바위에 올라타, 말에 박차를 가하듯, 미친 듯이 바위를 걷어찬다. 이처럼 마틴의 광기가 절정에 이른 이 순간, 나다니엘이 예언하였던 “검은 번개”⁷⁾가 마틴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6) 자릴 또한 마틴이 광인인 척 하는 이유를 그가 자신의 진짜 상황을 외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신의 온전함은 그[마틴]로 하여금 자신의 진짜 상황을 깨닫게 하여 죽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그는 제정신인 것보다는 미친 것을 선호한다”(sanity would make him realize his true situation and die, therefore, he prefers to be mad than to be sane, 193).

7) 대부분의 비평가들은 검은 번개를 신의 상징으로 보았다. 수레트는 이 검은 번개를 “자신의 필멸성을 포기하지 않는 인간에게 드러낸 신의 모습”(aspect of God revealed to any mortal who has not surrendered her mortality, 208)으로 설명하였고, 아놀드 존스톤(Arnold Johnston)과 화이트헤드(20) 역시 검은 번개를 마틴을 창조한 조물주, 즉 신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검은 번개가 진실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신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검은 번개는 마틴을 창조한 신이 아니라, 마틴이 배제한 실재의 체현으로서 진실 즉 실재를 보여주는 환상이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검은 번개는, 그 용어 자체가 시사하듯,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환상적 유령”(fantasmatic spectre) 혹은 “유령 같은 환영”(spectral apparition)으로서, 라캉의 실재의 체현이자, 지젝이 말하는 환상2이다. 지젝의 표현을 빌리자면 “상징적 허구로부터 배제된 이 실재”(this Real, foreclosed from the symbolic fiction)는 “유령 같은 환영의 모습”(in the guise of spectral apparitions, Žižek, *Interrogating the Real* 232)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재/환상2로서의 검은 번개는 마틴이 필사적으로 유지하려는 환상의 실체, 즉 상징적 허구의 본질을 드러내며, 마틴을 포함하여 마틴이 만든 환상을 직접 해체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해체 과정이 마치 종이 위에 쓰여진 글 혹은 그림을 지우는 것처럼 묘사된다는 점인데, 이는 자신의 죽음/비존재를 부인하면서 만든 마틴의 신체(정체성)는 “언어적 구성물”(verbal constructions, Waugh 26), 즉 언어로 이루어진 것이며, 바위섬을 포함해 그가 만든 주변 세계 또한 “상징적 허구”, 즉 언어로 구성된 환상이기 때문이다.

마틴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언어로 구성된, 더 나아가 종이 위에 쓰여진 “문학적 기호”(literary signs, Waugh 56)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골딩은 “그[마틴]의 입은 뭔가를 말했지만 그것들을 들을 수 없어서 그제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His mouth said things but he could not hear them so did not know what they were, 182)는 말로 암시한다. 마틴이 자신이 하는 말을 자신도 듣지 못한다는 것은 마틴이 귀가 먹어서가 아니라, 마틴이 하는 말은 실제의 말이 아니라, 종이 위에 쓰인 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마틴의 의식/중심이 만든 신체를 가진 마틴은 언어적 구성물이기 때문에, 마틴이 하는 말 역시 종이 위에 쓰인 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마틴은 자신이 하는 말이 압지(blotting paper)에 흡수되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압지와 “진짜 전쟁”(real battle)을 벌이며, “그[마틴]은 압지에 대항해서 단호하게 말했던 것이다”(He spoke flatly against the blotting-paper, 86).

마틴이 글로 이루어진, 언어의 몸을 가진, 언어적 존재이듯, 그가 만든 바위도 종이 위에 쓰여진/그려진 구조물, 골딩의 표현을 빌리자면, “판지로 만든 바위”(cardboard rock, 210)며, 그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바다 역시 종이 위에 쓰여진(그려진) 문자(그림)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은 “궁정적이고 의심할 바 없는

무”(positive, unquestionable nothingness, 95)로서, 마틴이 만든 환상은 실제로 무(無)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검은 번개에 의해 드러난다.

하늘에 검은 번개의 가지가 있었다. 소음이 있었다. . . . 바다는 움직임을 멈추고, 얼어붙더니, 검은 선에 의해 찢겨진, 그림이 그려진 종이가 되었다. 바위도 같은 종이위에 그려져 있었다. 그려진 바다 전체가 기울어졌지만, 아무 것도 아래로 흘러가 그것[바다] 안에 열려있던 검은 균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균열은 분명하고 절대적이었으며, 세 배나 진짜였다.

there were branches of the black lightening over the sky, there were noises. . . . The sea stopped moving, froze, became paper, painted paper that was torn by a black line. The rock was painted on the same paper. The whole of the painted sea was tilted but nothing ran downhill into the black crack which had opened in it. The crack was utter, was absolute, was three times real. (214)

검은 번개가 하늘 위에 나타나 내리치자, 이내 바다는 종이 위에 그려진 그림임이 드러나며, 검은 번개에 의해 찢겨진다. 따라서 찢겨진 종이 위에 그려진 바다가 기울어졌어도 바닷물이 흘러내리지는 않았던 것이다. “검은 균열”(black crack)을 만든 검은 번개는 상징계 내에 부재와 틈으로 존재하는 실재로서 마틴이 생존을 위해 매달리고 있는 바위도 바다가 그려진 같은 종이 위의 그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마틴의 환상이었음을 폭로한다.

마틴의 환상은 자신의 신체, 그가 생존을 위해 매달리고 있던 바위섬, 그리고 바위섬이 위치한 바다를 포함해, 그가 바위섬에서 보고 경험하였던 모든 것을 포함한다. 즉 마틴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 모두 환상이듯이, 그가 기술하였던 행위뿐만 아니라 그가 보았던 모든 것들이 마틴의 환상이며, 더 나아가 종이 위에 쓴 글이나 그림에 불과하다. 따라서 마틴의 환상(환상 1)의 실체를 밝힌 뒤, 검은 번개는 이 환상의 세계를 마치 종이 위에 그려진 글/그림처럼 지우기 시작한다.

이제 번개는 떠다니는, 움직임 없이 날아가는 파충류들을 찾아내었다. [검은 번개의] 덩굴손이 각각(의 파충류)으로 달려갔다. 파충류들은 저항하였다. 형

태를 약간 바꾸면서 그들 역시 떨어져나가더니 사라졌다. . . . 바다는 뒤틀리더니 사라졌다. 사라져가는 조각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것들은 스스로에게 돌아가, 바짝 마른 뒤, 파괴되었다. 오기(誤記)처럼 지워졌다. 절대적 검은 선들이 바위를 향해 나아갔다. 그것은 그려진 물처럼 실체가 없음이 판명되었다. 조각들은 사라졌고 집게발 주변에는 종이로 만든 섬만 남아 있었다. . . . 집게발 사이의 바위도 사라졌다. . . . 중심과 집게발만 있었다. . . . 그것들은 절대적 무를 배경으로 있는 밤의 표지판 같았다.

Now the lightening found reptiles floating and flying motionlessly and a tendril [of black lightening] ran to each. The reptiles resisted, changing shape a little, then they too, dropped out and were gone. . . . The sea twisted and disappeared. The fragments were not visible going away, they went into themselves, dried up, destroyed, erased like an error. The lines of absolute blackness felt forward into the rock and it was proved to be as insubstantial as the painted water. Pieces went and there was no more than an island of papery stuff round the claws. . . . The rock between the claws was gone. . . . There was nothing but the centre and the claws . . . they were outlined like a night sign against the absolute nothingness. (215; 밑줄은 필자의 것임)

검은 번개는 마치 사냥을 하듯 마틴이 만든 환상을 하나하나씩 찾아내 제거하는데, 그 첫 목표물은 마틴이 만든 환상의 허구성을 보여주었던 하늘을 나는 도마뱀/파충류이었다. 검은 번개는 하늘을 나는 파충류를 발견한 뒤, 그 긴 덩굴손으로 포획한다. 이에 마틴이 자신의 환상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 것처럼, 이 하늘을 나는 파충류도 검은 번개에 저항하지만, 결국 자신의 본 모습으로 변화하면서 이내 사라지고 만다. 다음으로 사라지는 것은 마틴의 생존을 위협하였던 바다다. 바다 역시 마틴이 만든 환상이므로 “궁극적인 진실”(ultimate truth, 95)을 보여주는 검은 번개의 다음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검은 번개에 의해 바다도 말라 버리며, 마치 “오기처럼”, 즉 잘못 쓴 글처럼 지워지게 된다. 이어서 검은 번개가 삼은 중요한 목표물은 마틴이 자신의 생존/환상의 근거로 삼은 바위섬이다. 검은 번개는 이 바위섬 역시 “그려진 물”(바다)처럼 “실체가 없는”, 종이 위에 쓰여진 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며 사라지게 하여, 결국엔 마틴의 생존 욕구를 상징하는, 바위섬에

매달리고 있던 마틴의 집게발(claws)과 이 모든 환상을 만들어 내었던 마틴의 “중심”만이 남게 된다.

모든 환상을 종이 위에 글처럼 지워버린 검은 번개는 마지막 목표물로 이 집게발과 중심, 즉 마틴 자신을 향한 마지막 일격을 준비한다.

번개가 앞으로 다가왔다. (번개의) 일부 선은 중심을 꿰뚫을 순간을 기다리며 중심을 향해 있었다. 다른 선은 집게발들의 약점을 찾으려, 그 위를 오가면서, 집게발들에 기대어 있었다. 그리곤 영원하고 자비 없는 동정심으로 그것들을 닳아 사라지게 하였다.

The lightening came forward. Some of the lines (of the lightening) pointed to the centre, waiting for the moment when they could pierce it. Others lay against the claws, playing over them, prying for a weakness, wearing them away in a compassion that was timeless and without mercy. (216)

이 마지막 장면에서 골딩은 마틴의 집게발과 중심이 소멸되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는 않고, 단지 검은 번개가 마틴의 중심을 꿰뚫을 순간을 기다리며, 동시에 집게발을 제거하기 위해 집게발의 약점을 찾고 있다고만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자비 없는 동정심”이란 용어가 시사하듯, 결국 검은 번개는 실재를 외면하고 숨기기 위해 환상에 집착하는 마틴(집게발과 중심)을 종이위에 쓰여진 글처럼 지워버릴 것이다. 즉 실재의 체현으로서의 환상2/검은 번개가 마틴이 만든 “상징적 허구”/환상1을 해체시켰듯이, 상징적 허구의 산물인 마틴도 이 검은 번개(환상2)에 의해 두 번째 죽음 즉 형이상학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III

작품에 나타나는 두 가지 환상은 대립을 넘어 서로 적대적으로 보인다. 상징적 허구/환상1은 실재를 거부하고 배격함으로써만 존립이 가능하고, 실재의 체현으로서의 환상적 유령/유령 같은 환영/환상2는 상징적 허구를 위협하며, 궁극적으로 검

은 번개처럼, 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두 환상의 관계에 대해서 지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환상1과 환상2, 상징적 허구와 유령 같은 환영은 따라서 같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다. 공동체가 환상1을 통해 그 리얼리티를 통제되고 구조화된 것으로 경험하는 한, 그것은[공동체] 그 중심에 내재한 불가능, 적대감을 거부해야 한다. 환상 2가 . . . 이 거부를 구현하는 것이다.

Fantasy 1, and fantasy 2, symbolic fiction and spectral apparition, are thus like the front and the reverse of the same coin: insofar as a community experiences its reality as regulated, structured, by fantasy1, it has to disavow its inherent impossibility, the antagonism in its very heart – and fantasy 2 . . . gives body to this disavowal. (*Interrogating the Real* 233)

(일상의) 리얼리티는 환상을 통해 구조화되는데 이것이 지젝이 말하는 환상1이다. 하지만 환상1, 즉 리얼리티로서의 상징적 허구는 그 안에 모순과 결핍의 형태로 존재하는, 지젝이 “불가능”이라 칭하는 실재가 존재하는데, 환상1이 존속하기 위해선 이 불가능/실재를 배척해야 한다고 지젝은 말한다. 즉 불가능, 즉 실재를 구현한 환상 2를 배척하여야만 환상1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환상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지젝의 진술은 이 둘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보이지만, 서로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는데 이는 “(환상의) 유령 없는 리얼리티는 없다”(there is no reality without the spectre,)는 지젝의 말로 보다 구체화된다(*Interrogating the Real* 229). 리얼리티가 형성되기 위해선 무엇인가 배제되고 배척되어야 하는데, 이 배제되는 것이 바로 (환상의) 유령, 즉 실재로서의 환상2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상1과 환상2는 서로 양립하지 못하지만, 동시에 존립을 위해선 서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양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를 필요로 하는 두 환상의 역설적 관계를 지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환상적) 유령과 (상징적) 허구의 개념은 그들의 양립 불가능성에 의해 서로 의존적이다. . . . 간단히 표현하면, 리얼리티는 결코 직접적으로 존재할 수 없

다. 그것은 불완전한, 실패한 상징화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유령 같은 환영은 실재와 리얼리티를 영원히 분리하는 이 틈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 . . (환상적) 유령은 (상징적으로 구성된) 리얼리티에서 벗어난 것을 구현한다.

The notions of spectre and (symbolic) fiction are codependent in their very incompatibility. . . . To put it simply, reality is never directly itself, it presents itself only via its incomplete-failed symbolization, and spectral apparitions emerge in this very gap that forever separates reality from the real. . . . the spectre gives body to that which escapes (the symbolically structured) reality.” (*Interrogating the Real* 229-30)

지젝에 따르면 상징적 허구는 그 자체로 존속할 수 없고, 무엇인가를 배제함으로써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제할 대상, 즉 유령 같은 환상(실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즉 거부할 적이 존재하여야 자신의 존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상징적 허구를 만들려는 마틴과 절대적 무의 세계, 즉 실재를 대변하는 나다니엘의 관계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마틴은 비존재/죽음, 즉 라캉적 실재를 받아들이라는 나다니엘에 대해 그가 죽기를 바랄 정도로 적대감을 느껴왔다. 상징적 허구를 고집하는 마틴에게 나다니엘은 자신과 양립 불가능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틴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같은 것이며 하나의 감정이었다”(to love and to hate were now one thing and one emotion, 108)는 사실, 즉, 나다니엘에 대한 자신의 증오심 이면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 깨닫고는 몹시 놀라게 된다. 따라서 배가 어뢰에 맞기 전, 마틴은 나다니엘이 죽기를 바랐지만, 바위섬에서는 나다니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며, 실상 자신은 나다니엘이 죽기 바라지 않았으며 자신의 모순된 감정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나[마틴]는 그[나다니엘]가 죽기를 바라지 않는다.” 슬픔과 증오가 (마틴을) 깊이 계속해서 물었다. 그[마틴]는 자신 고유의 목소리로 소리쳤다. ‘내 기분이 어떨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냐?’(‘I [Martin] do not want him[Nathaniel] to die!’ The sorrow and hate bit deep, went on biting. He cried out with his proper voice. ‘Does no one understand how I feel?’, 110).

마틴의 나다니엘에 대한 이러한 양가적 감정, 즉 나다니엘이 죽기를 바라면서

도 그가 자신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모순적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선, 자신과 마틴 사이엔 어떤 “연결고리”(connection)가 있으며, “우리[마틴과 나다니엘]는 같이 나아가기로 되어 있다”(we were meant to work together, 72))고 한 나다니엘의 진술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순수한 비존재”/무의 세계를 천국으로 간주하며, 그 천국으로 갈 것을 주장하는 나다니엘은 “존재”에 대해 집착하는 마틴이 자신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런던에서뿐만 아니라, 군 생활도 같이 할 정도로 늘 마틴과 함께 하였다. 나다니엘은 마틴이 자신과 상극이지만, 하나의 공동운명체로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마틴 자신도 자신과 나다니엘이 공동운명체임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 라캉의 상징계, 지체의 “상징적 허구”가 그 대척점에 있는 상징화될 수 없는 세계, 즉 실재 없이는 가능하지 않듯이, 혹은 존재와 삶이 비존재와 죽음 없이는 가능하지 않듯이, 나다니엘 없이는 자신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틴은 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마틴은 나다니엘에 대해 증오와 애정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데, 마틴의 이런 양가적인 감정은 환상1과 환상2의 관계를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마틴의 나다니엘에 대한 증오는 환상2에 대한 환상1의 거부와 배척에서, 마틴의 나다니엘에 대한 애정은 환상2에 대한 환상1의 필요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이다.

가츠이코 사이구사(Kazuhiko Saigusa)는 이 소설을 리얼리티를 자기중심적으로 재단하는 인간의 자기중심적 “이성주의에 대한 풍자 혹은 풍자소설”(a satire or satirical fiction against rationalism)로 보고 있다(49). 하지만 그의 이러한 시각은 생존하기 위해, 혹은 생존한다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상징적) 허구를 만들어가는 마틴의 행위를 특별한 개인의 행위로만 간주함으로써, 작품의 알레고리적인 측면을 도외시하고 있다. 바다에 떨어진 핀치 마틴이 시간의 흐름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게다가 그 위치도 정확히 제시되지도 않는 어느 바위섬에서 벌이는 행위, 즉 먹고 마시는 것은 물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사고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행위는, 그가 사후에 상상한 것이지만, 그가 생전에 하였던 행위의 반복이며 재현이다. 따라서 바위섬에서의 마틴의 삶은 실제 삶의 축소된 버전이자, 리얼리티의 연장으로, 언어로 구성된 상징계 내에서의 삶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마틴은 “일반적인 인간”(humanity in general)을 대변하며(Jalil 193), 마틴이 만드는

상징적 허구로서의 환상과 그의 환상을 무너뜨리는 실재로서의 또 다른 환상은 모든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보편적인 것이다. 즉 골딩은 알레고리적인 마틴의 생존과 형이상학적 죽음을 두 가지 환상을 통해 조명함으로써, 환상은 인간의 보편적 운명이라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성균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인용문헌

- Baker, James R. "An Interview with William Golding."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28.2 (1982): 130-70.
- Bufkin, E. C. "Pincher Martin: William Golding's Morality Play." *Studies in the Literary Imagination* 2.2 (1962): 5-16.
- Golding, William. *Pincher Martin*. London: Faber and Faber, 2015.
- Granofsky, Ronald. "'Man at an Extremity': Elemental Trauma and Revelation in the Fiction of William Golding." *Modern Language Studies* 20.2 (1990): 50-63.
- Hollinger, Alexander. "Pincher Martin's Losing Struggle for Identity." *Dialogos* 3 (2001): 77-79.
- Hynes, Samuel. "On Pincher Martin." *William Golding: Novels, 1954-67*. London: Macmillan, 1985. 125-33.
- Jalil, Nabil. "The Absurd Rebel on an Imaginary Rock."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Social Sciences* 6.4 (2012): 187-96.
- Johnston, Arnold. "The Miscasting of Pincher Martin." *William Golding: Some Critical Considerations*. Ed. Robert O. Evans and Jack I. Biles. Lexington: UP of Kentucky. 103-16.

- Kermode, Frank. "'Golding's Intellectual Economy'." *William Golding: Novels, 1954-67*. London: Macmillan, 1985. 50-66.
- Lacan, Jacques.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II*. Ed. Jacques-Alain Miller. New York and London: Norton, 1991.
- Oldsey, Bernard S., and Stanley Weintraub. *The Art of William Golding*. Bloomington: Indiana UP, 1965.
- Saigusa, Kazuhiko. "Golding's *Pincher Martin*: Rendering of the Techniques for Satire." *SHIRON* 44 (2008): 49-71.
- Surette, Leon. "A Matter of Belief: Pincher Martin's Afterlife."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40.2 (1994): 205-25.
- Waugh, Patricia. *Metaficti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Self-Conscious Fiction*. London and New York: Methuen, 1984.
- Whitehead, Lee M. "The Moment out of Time: Golding's *Pincher Martin*." *Contemporary Literature* 12.1 (1971): 18-41.
- Žižek, Slavoj. *Interrogating the Real*. Ed. Rex Butler and Scott Stephens. London: Bloomsbury Academic, 2005.
- _____. *The Sublime Object of Ideology*. New York: Verso, 2008.

Two Fantasies in *Pincher Martin*: Symbolic Fiction and Fantasmatic Spectre

Abstract

Il-Yeong Kim

Golding's *Pincher Martin* is a survival narrative which describes Martin's struggle for survival and his (metaphysical) death on the rock. The gimmick ending, which reveals Martin's death at the beginning of the novel, however, proves Martin's struggle for survival to be a fantasy constructed by Martin himself. However, the black lightening, which destroys Martin and his fantasy at the end of the novel, is also another kind of fantasy. Thus, the concept of Žižekian fantasy is instrumental in understanding the novel where the drama of Martin's metaphysical survival and death takes place in the form of two fantasies. Martin, when drowned and faced with the world of death/non-existence, denies his death, and constructs a "symbolic fiction"(Žižekian fantasy 1), Lacanian symbolic order, to maintain his illusion of being alive. Fantasy 1, in this way, functions as the screen which masks the real of his death/non-existence. The fictionality of his constructed world (fantasy 1) is later revealed by another fantasy (Žižekian fantasy 2) in the form of the black lightening which erases Martin and his fantasy 1, as if they were written words. This fantasy 2 is the embodiment of Lacanian real which makes its appearance as fantasmatic spectre. Fantasy 1 and fantasy 2 are, however, like the front and the reverse of the same coin. Fantasy 1 cannot be maintained without Fantasy 2, just as the symbolic order needs its opponent, the real, for its existence. The symbolic fiction and fantasmatic spectre which dramatize Martin's metaphysical survival and death are in this sense co-dependent in their incompatibility.

- ▶ 주제어: 윌리엄 골딩(William Golding), 상징적 허구(symbolic fiction), 실재(real), 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 핀처 마틴(Pincher Martin), 환상(fantasy), 환상적 유령 (fantasmatic spectre)

원고 접수 일자: 2021. 11. 25.

원고 수정 일자: 2021. 12. 16.

게재 확정 일자: 2021. 12. 24.